십자가 사명을 위한 기도

마가복음 14:32~42

【인도자를 위한 예화】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사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를 곁에서 보좌한 인물 가운데 방계성 목사가 있습니다. 방 목사는 32세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찮아 2년 만에 수료합니다. 이후 38세에 부산 초량교회 장로, 43세에 제주 추자도 신앙교회 담임 전도사, 만주 안동현 육도구교회 전임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주기철 목사의 부탁을 받았고, 당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거점이었던 산정현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주 목사를 도왔습니다. 주 목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방 목사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순교 이후 방 목사는 어려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와 타협주의를 향해 가는 신앙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선조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겠다는 신앙적 일념은 비록 각자 실천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신앙의 본질을 숙고하게 만듭니다.

고문과 죽음도 불사했던 선조들의 신앙적 기개를 계승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네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1:35),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6:46).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14:22~25)과 겠세마네에서 세 명의 제자를 곁에 두시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기도로 이러한 능력이 행해졌다고 가르치셨고(9:14~29),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가르치셨습니다(11:15~18).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11:22~24),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감정에 둘러싸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11:25). 또한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며(12:38~40), 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13:14~23).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나요?(38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을 짊어지기 전에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겠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33절).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여기에 앉아 있어라’(32절),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34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3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고통의 순간에 괴로운 마음을 함께 나누

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청은 그 순간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다닐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I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해서’(38절)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딛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신앙적 책무를 중요하게 여길 때, 기도가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II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우리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42절)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34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이 잔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십니다(35~36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39절).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느끼시는 고통의 표현이지,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십니다(42절).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적용과 나눔 II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 자신이 기도하고 또한 중보 기도를 부탁한 후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숭한 고통의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35~36절).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십니다. 둘째, 공동체에 현재의 마음을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십니다(34, 38, 41절). 하나님은 우리 또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한 깊은 고통을 수반하는지 깨달을수록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